국방교육체계 정립과 육군대학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방향*

최 인 수*

목 차

1. 서 론
2 문제인식과 접근
3. 국방교육체계 정립
4 육대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방향
5. 결 론

1. 서론

최근 군사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육군은 '03년부터 각 병과학교에서 군사학 학사학위 수여를 위한 교과를 편성 적용하고 있고,[1] 작년에는 각급 학교에 군사학의 분과(分科)로 군사사상, 군사이론, 군사사 및 전쟁사 과목을 개설토록 하였다 한편, 민간대학에서는 대전대학교를 필두로 하여 여러 일반대학에서 군사학과를 설치하고 군사학 석사 및 학사과정, 그리고 전문

* 육군대학 교관

1) 육군에서는 각 병과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전학(전투병과), 군수관리학(기술병과), 군사행정학(행정병과)으로 구분 초군반과 고군반을 연계시켜 군사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학사과정까지 개설해 나가는 추세이다. 이러한 최근의 성과는 지난 20여 년간 군내·외의 학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결과로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연구와 논의가 주로 군사학 학문체계에 관한 것들로, '군사학이 학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또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연구였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러한 학문체계를 실제에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군사학 학문체계와 관련한 여러 연구의 경우 대부분 단기적, 일회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각급기관에서 나름대로 특정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80년대 초에는 국방대학원 석사과정 개설에 맞추어 "군사학 이론과 교육체계 확립"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90년대 초에는 국방대의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방향"에 대한 안보학술 세미나와 국방연구원의 "국방교육법시행체계 연구" 등을 통해 '93년 국방교육훈련규정을 발간하였던 사례 등이 그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9년 육사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위원회」에서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당시 연구위원회에서는 군사학의 대상범위와 방법론 등을 규정하고, 군사학이 보다 완벽한 학문체계를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 학문공동체를 구축할 것과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군사학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군사학 학문체계'의 논의만을 반복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이제는 '군사학 교육체계'를 정립하여 학문에 피와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학문과 교육 두 가지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일반적인 학문발전의 추세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

2) 육사 군사학 학문체계연구위,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 화랑대연구소, ('99), pp 261-267

그러나 최근('05. 7월) 국방대에서 실시한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 워크숍의 내용을 보면, 군사학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교과편성,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과 학위수여방안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과거의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와 크게 차별화되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우리 군이 추구하는 국방교육의 지향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군사교육을 통해 만들어 내고자하는 군사전문가의 모습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상급군사교육기관(국방대, 합참대)과 각군의 군사교육기관이 추구해야할 교육목표와 주안을 두어야 할 교육내용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고 여전히 의문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국방교육체계의 문제를 지적한다면, 각군 교육기관별로 각기 나름의 교육목표와 중점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군사교육체계의 연계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명확한 국방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개인의 군사전문성 계발을 위한 종합교육기획이 군 생활 전체기간에 걸쳐 견실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상태라 하겠다 이렇게 국방교육에 관한 일반지침이 불명확한 주된 이유는 국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할 조직과 전문연구인력 및 각종 지원이 미흡한데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미래형 선진정예국군을 지향하는 우리 군으로서는 그 위상에 걸맞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대의 군사학교육체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창군 이래 반세기,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 이래 4반세기 동안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군사학 교육체계의 정립이 미진한 근본원인을 국방교육체계가 부실하다는 데 있다고 보고 몇 가지 논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국방교육체계의 정립을 염두에 둔 가운데, 장차 안보환경 및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미래

육군대학의 임무와 역할을 조망해본 후,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및 교과편성 방향 위주로 '육대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아쉬운 것은 필자의 제한된 경험과 일천한 교육학적 지식, 그리고 시간상의 제한으로 인해 보다 깊이 있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연구내용이 다소 개념적이며, 구체적인 분석과 현실적인 대안제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육군대학의 교과편성을 담당하면서, 그리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나름대로 종합 정리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거시적인 국방교육정책 수립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문제인식과 접근

필자가 지난 1년 여간 육군대학의 교육계획업무를 담당하면서 의문을 가졌던 사항은 육대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능력을 지니도록 얼마동안 교육시켜 배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물론 대통령령인 '육군대학령'이나 편제표상에 대학의 임무가 제시되어 있고, 매년 육군본부에서 발간하는 학교교육지침에 보다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중점이 나와 있지만, 대학령과 편제표상의 임무는 상급지휘관의 의도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성격이고, 학교교육지침의 내용은 사실상 육군대학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추인 받는 형식으로 큰 틀에서의 일반지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대학의 교육체계도 수시로 변경되어, 교육기

간 및 교육과정편성은 물론 교육내용도 때에 따라서는 아주 큰 폭으로 변화되어왔다. 교육기간 및 과정편성에 있어서는 평준화된 교육과 소수인원위주의 엘리트 교육 사이에서, 교육내용 면에서는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둔 연·대대전술 위주의 교과편성과 사단 및 군단급 이상 제대에 초점을 맞춘 교과편성 사이에서 지난 수십 년간 변경을 반복하여왔다. 이렇게 육대 교육이 표류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육군대학이 전체 국방교육체계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미흡했던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일례로 국방교육에 대한 일반지침을 제공하는 '국방교육훈련규정('02)'은 학교기관별로 지향해야할 교육내용과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각군대학의 교육과정은 해당 군에서 관장하되, 상급군사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3]라고만 되어 있을 뿐인데, 이를 통해서는 육군대학의 교육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육군대학뿐만 아니라 여타 군사학교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 군의 군사교육은 창군당시부터 당장의 급박한 필요에 의해 '수료후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병사뿐만 아니라 장교를 대상으로도 실시되어왔다 이후 전문적인 직업군인 양성을 위해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일반학문을 가르쳐 잠재력을 개발하고는 있으나, 기타 보수교육기관은 대체로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능력"**(보수교육의 정의, 국방교육훈련규정)을 부여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러한 교육이 단기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수긍할 만 하나, 장차 10~20년을 활용할 전문 직업군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단기의무복무를 전제

3) 국방부 훈령 제708호 "국방교육훈련규정" 제9조, 국방부 ('02), p20

로 한 교육과 장기 활용을 전제로 한 교육은 교육의 목표가 달라야 하고, 그 목표에 따른 기획 역시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들이 간혹 제기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 중의 하나는 교육시킬 내용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군사전문성' 배양이 필요하지만, 탄탄한 이론을 기초로 한 군사학 학문체계의 미비로 '전술, 전기, 절차(TTP · tactics, techniques, & procedures) 위주의 교육'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직무보수교육 이상의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 '듣기에는 좋으나 다소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겠다.

결국 군사학 교육체계의 발전은 군사학 학문체계의 정립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학문과 교육이 서로 다르지만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학문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후속세대를 꾸준히 양성하여 그들에 의해 보다 많은 분과학문(disciplines)이 발전함으로써 학문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게 하고, 나아가 관련학문의 교육체계를 더욱 견실하게 해야 한다[4] 이렇게 보면 최근의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움직임은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에도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학문체계 관련 논의를 집대성하여

---

4)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에 관해서 육사의 연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① 학문체계가 먼저다 학문체계는 탐구의 대상과 영역 그리고 세부주제를 체계화한다 즉, 학문체계는 이를 연구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에 대한 목표와 내용이 되고,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② 교육체계는 학문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학문체계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정설계도이다 ③ 그러나, 교육체계 역시 먼저 성취하고 실현해야 할 이념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학문적 체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이상과 가치 그리고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이념과 목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체계와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상자의 연령이나 계급에 따라 학문체계상의 분야와 과목들을 계서적으로 배열, 차별화한다 전게서,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 p214

정리한 육사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군사학 학문체계 연구위원회」는 군사학이 학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나름의 연구주제와 영역, 연구방법론,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학문공동체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면서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한 군사학의 현 실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군사학의 정의, 연구대상, 방법론 및 군사학 학문공동체[5)]

① 군사학의 정의
  ㉮ 협의 군사력의 개발, 운용, 지원 및 관련된 제요소(군사력의 문제)
  ㉯ 광의 협의 + 전쟁의 본질과 성격 연구 (전쟁과 군사력의 문제로 압축)
② 군사학의 연구대상
  ㉮ 전쟁의 본질 및 현상연구 · 전쟁학, 전쟁철학, 전쟁법, 국방론, 군사사상
  ㉯ 안보정책 연구분야 안보정책, 국제정세, 지역군사연구, 국가전략, 국방경제
  ㉰ 전쟁 및 군사력 연관분야 · 전쟁사, 군사사, 무기발달사, 군사지리, 군사교리발달사, 군사과학기술, 군의학, 군사법, 군사심리학, 군대윤리, 군대사회학
  ㉱ 군사력 운용분야(협의)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 지휘통솔, 군사정보
  ㉲ 군사력 개발 및 유지(협의) 군사연구 및 개발, 인사관리, 군사력 역할, 동원 및 준비, 군사교육학, 군사 및 국방관리, 자원관리, 무기체계, 군사과학기술
③ 군사학의 방법론
  ㉮ 정책과학 ㉯ 실증과학 ㉰ 규범과학 ㉱ 인문사회과학
④ 군사학의 학문공동체
  ㉮ 군사학의 고유 핵심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을 아우르는 용병술에 관한 이론적 · 학술적인 연구가 미흡하고 학문공동체의 형성이 미흡
  ㉯ 황병무 교수 "군사학을 연구하는 학계의 부재는 군사학의 이론체계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만이 아니라, 군사학 학문체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학문분야가 될 수 없다"

5) 상게서, pp 204-213

연구결과에 따르면, 군사학의 연구주제와 범위, 그리고 방법론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된 듯하나 학문공동체의 경우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 주된 원인은 군사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세대 양성이 미흡하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제는 군사학 교육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시행이 조속이 추진되어야하고,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있어서는 군사학의 핵심고유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대학이 그 주체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 국방교육체계 정립

육군대학의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방향을 언급하기에 앞서 국방교육체계의 전체 구조를 조망해보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 무엇인지 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국방교육체계의 문제점

1) 국방 교육훈련규정의 미비

우리 군의 교육훈련을 관리 및 통제하는 최상위 문서로는 국방부 훈령 제 708호인 "국방교육훈련규정"이 있다. 이는 총 27조로 되어 있고, 지난 '93년 최초 작성된 이후 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주요내용은 ①총칙, ②교육훈련 목적 및 중점, ③교육훈련의 구분 및 체계, ④학교교육 지침, ⑤부대훈련 지침, ⑥교육훈련 관리, ⑦교관 및 교수관리, ⑧교육훈련 지원, ⑨부칙 등이다 이중 육군대학과 관련된 몇 가지 지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학교교육 학교 및 교육기관에 입교한 교육생에게 장차 부대(서)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잠재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군사교육과 전문교육을 말한다
- 양성교육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선발된 민간인을 군인화함을 목표로 시행, 임무수행에 필요한 잠재능력과 기본소양을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다
- 보수교육 양성교육을 이수한 장병 또는 군무원에게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임무수행능력을 부여하고, 병과 및 특기의 기초지식과 차상급 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한 능력계발을 목표로 한다
- 각군대학 이하 교육과정은 해당 군에서 관장하되 상급군사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야전/실무 및 정책부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 적전술(적 편성, 무기/장비, 강약점) 교육을 강화하여 시행
  - 토의식, 상황별 실사례 및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
  - 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교육으로 대체
  - CBT나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 또는 확보하여 적극 활용

이상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식별되는데, 우선 학교교육을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으로 양분한 것을 들 수 있다 현재의 개념은 한번 군인으로 양성한 이후에는 "계급과 직책에 상응하는 임무수행능력"을 부여하는 사실상 직무위주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야전 및 실무정책부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육대의 경우만 하더라도, 교육 수료후 대부분의 장교가 별다른 재교육의 기회가 없이 10~15년간 근무하게 되며, 이러한 장기간 활용할 자원에 대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한다는 개념은 합당치 않다

따라서 여기서의 '계급'이 해계급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실적

으로도 야전 및 정책부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래에 대비한다'는 교육의 본질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당연히 학교교육은 해계급 이상의 계급(적어도 차차 상위계급)까지의 직무수행능력 및 잠재능력 계발을 추구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보수교육이라는 용어가 지니는 뉘앙스의 문제다. '보수(補修)'의 사전적 의미는 '낡은 것을 보충하여 수리한다'는 것으로, 이를 재해석하면 그 목적 자체가 활용기간의 단기적인 연장, 효율성의 저하 속도 둔화, 또는 용도를 좀더 다양하게 하기 위해 기계, 장비 등을 고쳐 사용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약 우리의 학교교육이 이러한 정도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장교교육을 실시한다면, 미래 전장을 주도할 군사전문가 육성을 위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듯하다

둘째로, 각급 학교기관에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불명확하다. 특히 가장 많은 군사교육기관이 관련된 보수교육의 경우, '상급군사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이러다보니, 현재 각급 군사학교의 교육내용을 검토해보면, 학교간 교육내용의 연계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방대학교 교육과정 중 군사학 학문체계와 가장 근접한 교과편성을 하고 있는 안전보장학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주로 국가안보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전략과 작전술의 비중이 낮으며 일반대학 안보학과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합참대의 경우는 군사전략기획 및 합동작전술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국가안보정책 분야가 비교적 저조하며, 육군대학 역시 전술 및 작전술 위주의 교과로 편성되어 있고 국방정책

및 전략분야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을 참조)

특히, 육대의 경우에는 군사학의 핵심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전술 및 작전술 분야의 이론연구가 미약하다 즉 근본적인 원리 형성의 배경과 원인에 대한 탐구보다는 단순히 제시된 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실습위주의 교육이 지배하고 있고, 다양한 1차 자료의 축적과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근원적으로 국방부 차원에서부터 영관장교에 대한 교육목표와 그 목표달성을 위한 기획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차제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군사학 학문체계를 토대로 하루라도 빨리 전체 국방교육체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국방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빈약

현재 우리군의 국방교육정책을 관장하는 기구는 국방부 인사국 교육과로, 이전에는 교육정훈국 예하에 있다가 '98년 12. 31부로 인사국으로 조정되었다 교육과의 기능은 ① 국방교육훈련 정책수립, ② 양성 및 보수교육 조정·통제, ③ 국방교육분야 사업계획의 종합·조정, ④ 전문인력 육성 및 대외 군사교육 교류계획 수립, ⑤ 교육 및 훈련예산 검토·조정, ⑥ 국방부 직할기관의 교육계획에 대한 조정·통제 등이며, 이를 위해 교육기획 및 총괄담당, 교육정책/제도담당(경영학 박사), 보수교육 담당, 양성교육 담당, 해외위탁 및 수탁, 연수, 교육교류 등을 관장하는 전문교육 담당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교육과가 인사국 예하에 편제되어 있고, 담당실무자들이 대부분 인사직능 보유자들이라는 점이다 이는 교육정책 수립시 인력 및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전·평시 직무수행을 고려한 교육소요 판단, 교육기관간 교육내

용과 수준의 연계성 유지 및 관리, 야전 및 실무부대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한 석·박사가 편제되지 않고 있는 점도 아쉬운 면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국방부의 교육 정책기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방기본정책서나 국방백서에 반영된 내용도 국방교육체계 발전이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현 교육체계상에서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지침(과학화, 정보화된 교육) 정도가 주로 제시되고 있는 수준이다[6]

둘째로, 국방교육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연구인력이 부족하다 현재까지 국방교육체계에 관련된 연구는 주로 KIDA 인력개발연구센터의 인사교육연구실에 소속된 2~3명의 연구원이 담당해왔고[7] 이들의 연구결과가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어왔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앞에서 언급한 국방교육훈련규정이다. 이렇게 전문연구인력의 층이 엷다보니, 다양한 정책대안이 나올 수 없고, 외국의 국방교육사례연구도 그 깊이와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아무리 군사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전문연구기관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교육과 훈련의 관리책임이 이원화되어있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다 현재의 체계는 국방부는 교육을 담당(교육과)하고, 합참은 훈련을 담당(교리훈련부)하는 것인데 이는, 교육과 훈련의 상호 중첩성과 환류 및 종합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체계이다.

---

6) 국방기본정책서의 교육훈련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중 특징적인 것은 합동군사교육을 강화하여 각군 대학에서 1차적인 교육을 담당하고, 합참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과 각군의 학교교육은 전투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군·학 교류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 등이다(국방기본정책서, '02)

7) 필자가 확인한 88년 이후 군사 및 국방교육훈련 관련 연구보고서 6건이 모두 동일연구실에서 동일한 연구자들에 의해 실시된 내용이었으며, 기타 기관에서는 유사한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미군의 경우에는 합참에 교육훈련부장(J-7)이 편성되어 군 교육훈련 정책문서를 작성하고, 전략적 및 작전적 수준의 교육훈련 소요과제목록인 UJTL(Universal Joint Task List)을 만들어 각급 학교의 교과편성시 활용하고 있다.[8)]

넷째로, 실제교육을 담당하는 각급 군사학교의 경우에는 교육학 전문가가 부족하여,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우선 당장의 소요만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징병제하에서 다수 인원이 단기복무를 하는 우리 군의 특수성에서 초래된 어쩔 수 없는 경향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교육학적 전문성이 미흡한 가운데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데에 더 큰 원인이 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동안의 군사학 학문체계 및 교육체계 발전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와 논의가 일회성이었고, 후속되는 노력과 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성 연구, 또 각급기관에서 자체의 필요에 의해 산발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들은 정책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말았다. 일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02년판 국방기본정책서의 내용과 실제로 동년에 개정 발간된 국방교육훈련규정의 내용을 보면 상호연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주체가 불명확한데다가 그 추진동력마저 약했던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발전방향

1)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인식 전환

우리 군의 국방교육체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외양을 갖추기에 앞서 국방교육 또는 군사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

8) 최상철 "미 전문군사교육정책(번역물), 육군교육사령부 번역지원실, ('00), p80

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공유해야 한다

첫째, 교육이란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보다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교육의 어원은 라틴어의 Educo=E+Duco의 합성어로서 '속에 지니고 있는 것을 밖으로 꺼낸다' 즉,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질을 잘 길러준다는 의미다 이와 같이 교육은 어떤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끄집어내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지식의 전달이나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한 행위의 변화 또는 습관의 형성이라기보다는 내부로부터의 성장을 돕는 일이며,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끄집어내는 産婆術(Maieutike)인 것이다[9] 따라서 진정한 교육의 효과는 즉각 발휘되기보다는 피교육자의 사고(思考)에 자기개념화 되어 있다가 후일 표출되어지는 것이며, 이런 의미로 '교육은 百年大計'라 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 군이 교육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군사전문성의 개발은 단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한다. 직업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최초 그 직업에 입문할 때부터 떠날 때까지의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계발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한 전장상황을 다루게 될 군사엘리트에게 요구되는 수준은 마땅히 학교교육 수준을 넘어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학교교육은 단지 그 기초를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마치 공장에서 조립품을 생산하듯이 '야전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수료생을 요구하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하게 된다.

2) 교육정책부서의 기능 강화 및 국방교육분야 연구인력 확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과 아울러, 국방교육을 담당할 조직을 강화하고 전문연구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야 한다. 우선적

9) 지종상, "군사전문성의 본질과 직업전문가 계발", 군사평론 304호 부록, 육군대학, 93년, p16

으로는 국방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국 교육과를 확대하여 교육국 또는 인적자원개발국으로 독립시키고, 예하에 교육정책과, 교육통제과, 교육운영과 등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국'단위가 곤란하다면 인사국장 예하에 교육차장을 두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담당 실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침을 개선하여 인사직능 보유자뿐만 아니라, 공통직위 특히, 작전·기획직능(530, 560, 620) 보유자들을 보직하여 전시임무와 연계된 국방교육정책 수립을 보장하며, 교육학 석·박사를 양성하여 교육정책 담당관으로 보직함으로써 국방교육의 전문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 민간의 전문 인력을 적극 아웃소싱하여 국방교육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즉, 민간의 교육전문가를 영입하여 국방교육정책 담당자로 보직하거나, 국방연구원 외에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이나 민간대학의 교육학 연구소 등을 활용하여 국방교육체계 및 각급 군사학교기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가칭 '국방부 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현재 육군 교육사 및 예하 각급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다 반면, 국방교육을 총 책임져야할 상급기관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기구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의 하나이다 '국방부 교육심의위원회'는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인사국장, 합참 작전부장, 각군 정작부장(교훈부장) 등으로 편성하고, 국방교육의 이념과 목표 제시, 국방정책의 수립 및 그 시행의 감독,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을 관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10]

---

10)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990년 국방연구원에서 연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종인, 김인국, "군 교육법령 제정 연구", 국방연구원, ('90), p 72를 참조

3) 국방교육기획관리제도 시행[11]

현재의 국방교육훈련예산은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하고, 경상운영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계획에 대한 예산지원의 보장이 미흡하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추진에 다소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훈련분야가 인력의 하위분야가 아닌 별도의 기획요소로 평가절상 되어야 한다. 기획단계에서부터 '국방교육훈련기획서'를 작성하고, 계획단계에서는 중기계획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교육훈련분야를 명시하며, 연도별 예산편성시 '국방교육훈련예산 요구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학교교육의 분류기준 변경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학교교육을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양분하는 것은 보수교육의 의미를 왜곡하여 결국은 학교교육의 본질을 흐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교육체계를 양성교육, 초급교육, 중급교육, 고급교육(또는 상급교육)과정으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초급교육은 장교의 경우 OBC · OAC 과정, 중급과정은 육대과정, 고급과정은 합참대 정규과정 및 국방대 안보과정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장교 군사전문성 계발이라는 최종목표를 지향하면서 각 교육기관의 교육수준과 범위를 지정하기 용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방교육목표의 통일과 각급 학교간 교육의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5) 가칭 '국방교육훈련법' 또는 '국방교육훈련령'의 제정

이상에서 제시된 내용 중, 1), 2), 3)번은 각기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들이나

11) 이에 대해서는 지난 1992년 국방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이종인, 김인국, "국방중장기 교육정책 연구", 국방연구원, '92, p69-72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때문에 국방교육에 관한 법제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인 교육관련 법규의 경우, 모법인 교육법을 통해 중요한 교육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미군의 경우에도 교육관계법령(US Code Title 10)을 종합법령의 형태로 작성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 강제성이 부여될 때 국방교육정책이 추진력을 가지게 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여러 개별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교육관련 법규를 단일화된 법률로 일원화해야 한다[12]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대통령령(가칭 '국방교육훈련령')으로라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6) 합참의장의 국방교육분야 조언기능 강화

각부서의 책임을 명시한 현 국방교육훈련규정의 내용상, 합참의장은 학교교육과 관련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이는 국방교육과 군사훈련 간의 괴리가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바, 합참의장의 교육분야 조언기능을 강화하여, 각종 훈련 및 연습결과, 해외파병운용결과 등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학교교육 소요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합동작전과 관련해서는 교육소요제기 뿐만 아니라 일부 통제기능까지 부여한다면 교육에 있어서의 합동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고급교육기관(합참대)과 중급교육기관(육대)과의 연계된 교육이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2) 양성/보수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국군조직법, 위탁교육 관련내용은 군인사법, 학군후보생 관련내용은 병역법 등에 포함되어 있다

<표 2>국방교육훈련에 관한 부서별 기능, '국방교육훈련규정 제4조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과 계획의 수립, 평가, 조정 및 통제 국방교육 관련제도 연구 및 발전, 대외군사교육 교류계획 수립/조정 교육훈련분야 예산의 종합, 검토 및 조정, 국직교육기관 교육계획 관리
합참	연합 및 합동훈련 관장, 민관군 통합훈련 계획, 시행, 조정 및 통제 합동/국직부대에 대한 부대훈련과 지원업무에 관한 지시, 조정, 통제 합참 및 연합사 주관 연합/합동훈련 예산의 검토 및 조정
육본	육군 교육훈련 및 지원정책 수립/시행, 교육훈련 제도 발전 육군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평가 및 예산편성 요구 및 집행

라. 소결론

군사학은 기초과학이라기보다는 응용과학이며 실용학문으로서 정책과학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군사학 학문체계의 논의만을 반복하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군사학 교육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하는 연구소요와 '신분별·계급별로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교육소요를 판단하여 학문체계와 교육체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되, 각군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국방부차원에서 거시적인 안목의 국방교육정책을 수립,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할 조직과 인력, 예산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4. 육대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방향

육군대학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군 전체구조 속에서 육대의 위상과 그 사명을 새로이 인식해 보고, 미래 작전환경 및 전투수행개념의 변화 그리고 영관장교에게 요구되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소요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도출된 교육소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①어떤 교육과정을 개설·운용할 것인가, ②어떤 내용(교과편성)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상한다면 장차 지향해야 할 방향과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가. 육대의 위상과 사명

육군대학의 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관장교를 교육하는 육군의 최고·최종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교육대상인 '영관장교'는 육군 정책부서 및 야전부대를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동력원(動力源)으로 전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작전적 및 전략적 차원의 임무도 수행한다. 따라서 영관장교들의 사고방식과 그 능력여하가 군 전체 임무수행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로 '최고·최종 교육기관'이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육군대학이 ①지상군 최고제대(야전군 사령부, 지상구성군 사령부)의 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②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전략 및 작전기획시 육군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케 하며, ③최종적인 교육기회로 향후 지속적인 직무계발 및 자기계발을 위한 기반을 구축토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육군을 주도할 **"영관장교들에게 최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장교들의 적성을 발견 및 지도하여 장차 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육대의 본질적 사명이며,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그 사명이 더욱 막중하다 하겠다.

나. 미래지향적 교육소요 도출

1)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

미래에 필요한 교육소요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래의 안보환경변화를 조망해보아야 한다. 여러 가지 문헌들은 종합 분석한 결과 미래에는 현재보다 불특정, 비대칭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등 위협의 근원과 양상이 다양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군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되어 정규전 중심에서 해외파병 및 재해재난 구조작전 등 전 영역에서의 군사활동이 요구될 것이다 둘째로 군구조, 교리, 무기체계 등 전반적인 군사분야의 혁신으로 인해 점점 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국가간 상호의존도가 증대되어 감에 따라 장차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은 관련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영향을 미쳐 다국적 및 연합작전의 소요가 증대될 것이며, 분쟁에 있어서 군사분야 외에도 비군사분야의 역할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육군에서는 미래 육군의 전투수행개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3> 미래 육군의 전투수행개념(육군 VISION 2025)

① 합동작전의 중심인 육군

- 해 공군과의 상호운용성 보장 · 교리, 절차, 계획 등
- 지상군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

  * 표적정보제공, 화력유도, 피해평가, 지역확보, 적 격멸, 평정작전

② 다양한 능력을 갖춘 육군

- 전 범위 군사작전(전쟁 및 전쟁이외의 군사활동) 수행능력 구비
- 국가 위기관리, 국가정책구현,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③ 정예화된 육군

- 전 장병의 전문화, 무기 장비의 현대화
- 전쟁수행개념 / 방식 발전, 실전적 교육훈련, 효과적인 전투근무지원

④ 정보화·과학화된 육군

위와 같은 육군의 미래 전투수행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전 역량을 통합, 군사작전에 합목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즉, 지역내 정부 유관기관, 비정부 및 다국적 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가용한 자원(인력, 과학기술, 물자, 의료, 수송수단 등)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합동 및 연합작전을 주도하면서 효율적인 제병협동전투를 실시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용병술(군사지휘관리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영관장교에게 요구되는 능력 식별

다음으로는 영관장교들이 장차 수행하게 될 전·평시의 직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직무수행간 요구되는 능력을 식별해 내고, 이를 토대로 대학에서 교육해야 할 소요를 도출한다 지난 '93년에

실시된 한 연구는 영관장교들이 보직되어 수행하는 직무를 분석한 후, 계급별로 갖추어야할 직무능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4 영관장교 계급별 교육소요>[13]

계 급	교 육 소 요
소·중령	① 분야별 전문군사지식 및 잠재역량 개발 ② 연합 및 합동작전 실무, ③ 대대급이상 지휘관 및 참모업무 ④ 제병협동작전 계획수립 및 수행
대 령	① 연대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 ② 군사전략 및 정책 기획, ③ 연합 및 합동작전 계획/수행 ④ 작전술차원의 전투력 통합 및 배분

지금까지 앞에서 도출된 미래 작전환경변화에 따른 교육소요와 영관장교 직무분석에 기초한 교육소요를 종합하면 장차 영관장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교육소요를 다음의 <표 5>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결국 장차 육군대학의 교육소요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각군간의 合同性, 비군사적요소를 포함한 제 자원의 統合性, 연합 및 다국적 역량과의 相互運用性 배양을 지향한 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13) 이종인, 김인국, "상급군사교육체계 발전방향 연구", 국방연구원, ('93), p36

<표 5 영관장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교육소요 종합>

구 분	요구되는 능력(구체화)	교육내용(과목)
공통적인 능력	① 정보활용 ② 팀워크/리더십 능력 ③ 국방 자원관리 능력	지휘통솔, 부대관리
안보정세 판단 능력	① 발생가능한 제 위협요소에 대한 예지력 ② 역사관에 기초한 안보정세 판단 ③ 현존 및 장차위협 판단 능력	민족사, 군사사상, 전쟁사, 국제정치이론, 지역연구 등
전략/작전 기획 능력	① 제 작전요소의 능력과 제한사항 이해 ② 최적의 조합을 통해 극대화된 전력 창출	국방정책 및 전략기획, 전역기획, 참모학, 리더십, 무기체계 등
제 작전의 수행 능력	① 다차원(지,해,공,우주,사이버) /제작전요소 동시통합 및 운용 능력 ② 제병협동전투수행 능력 ③ 전쟁이외 군사활동 수행능력	제병협동·합동·연합 및 다국적 작전, 군사이론 및 교리, W/G 등

다. 발전방향

1) 육군대학의 임무와 기능 확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교육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육대의 임무와 기능이 현재보다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학에 부여된 임무는 '**군의 영관장교에게 연대급 이상 제대의 전술교육과 직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 및 지휘관계발과정 교육, 그리고 전투발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의 임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연대급 이상 제대의 전술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다분히 전술적 수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작전 위주, 즉각 활용할 내용 위주의 교육내용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또한 '직무수행을 위한 보수교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즉, '지휘관 계발과정 교육'처럼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과정의 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라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따라서 장차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합동성·통합성·상호운용성을 지향"하는 교육을 추구하려면 대학의 임무도 이에 걸맞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즉, 현역 영관장교 중심의 교육에서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공무원 및 준공무원까지 포함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민·관 군 통합작전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학의 핵심고유영역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의 저변이 확대되고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교육내용과 수준이 전술 중심에서 점차 정책 및 전략, 그리고 작전술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장차 영관장교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연계되는 것으로, 특히 미래 육군이 수행하게 될 전쟁이외 군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고려하고 미래의 사단급 능력이 현재의 군단급 능력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장차 대학의 임무를 기술한다면, "**군의 영관장교 및 위임된 공무원에게 사단급 이상 연합 및 합동작전을 포함한 전술과 행정지원에 관한 학술(學術)을 교수하고, 지휘관 부임전 교육 및 참모기능별 직무보수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통한 군 간부 평생교육, 그리고 전투발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연합 및 합동작전을 포함한 전술교육'

은 현대전의 본질이 연합 및 합동작전이며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이므로 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명시하였고, '행정지원'은 용병뿐만 아니라 양병차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전략적 및 작전적 군수지원과 자원관리까지 포함하고자 명시한 것이다 또한 '참모기능별 직무보수교육'이라고 명시하여 직무보수교육과정의 별도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보수교육의 성격과 범위를 한정하였고, 전자적 네트워크 확장에 대비하여 '사이버교육을 통한 군 간부 평생교육'을 새로운 임무로 추가하였다

2) 보다 다양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

이러한 대학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도 현재보다 더욱 다양화하고 과정별 교육목표와 수준도 차별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육군대학 교육과정은 모든 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과정(16주)과, 기본과정 수료자중 약 50%를 선발하여 교육하는 정규과정(33주), 그리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정규과정(3년, 원격개인학습)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 교육과정의 특징은 '엘리트 교육' 보다는 더 많은 인원에게 교육의 기회, 발전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 구조개편과 아울러 장교 인사관리제도 개선, 군의 복지수준 향상, 군 전문직업주의 확립, 사이버교육체계 발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장교들이 "육대 정규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질 것이며, 이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양해지고 과정간 교육내용도 더욱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소수 엘리트에 대해 보다 장기간의 집중교육을 시행하는 특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기대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장차 교육과정 편성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교육과정 편성방향

과 정 명	대 상	내 용
지휘참모과정	8개월, 000명 전투병과 전원	· 정책/전략으로부터 사단급이상 전술
고급군사 연구과정	1년, 00명 지휘참모과정 수료자 중, 주요직책 수행 대상자	· 전술학이론, 연합/합동작전 교육위주 · 연합 및 합동, 다국적 훈련참가 · 정부 및 민간기업 실무연수 ※ 국방대, 합참대 등과 연계하여 군사학 석사학위 수여
기본군사과정	3개월, 000명 기행/특수병과, 공무원 위탁생 등	· 기본군사지식, 사단급이하 전술교육 · 양병차원 행정/군수지원 관련내용
사이버교육과정	1년, 000명	· 지휘참모과정과 유사한 교과편성

3) 합동성·통합성·상호운용성 발휘를 지향한 교과편성

교육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과편성(교육과목 및 시간편성을 의미) 역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의 국방교육체계 발전방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육대교육의 수준과 목표에 대한 전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드시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육대교육만으로 군(야전)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영관장교의 경우에는 그 요구되는 능력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일정기간 동안 제한된 내용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학교교육만으로는 교육소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학교교육은 개인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반지식과 방법론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과편성방향 검토시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고려사항은 합동작전 위주의 전문군사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육군대학은

모든 영관장교가 교육받을 수 있는 최종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합참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육군 자체의 교육소요를 고려하여 장차 합동 및 연합작전을 수행하면서 육군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교육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셋째로 전술학의 이론부분 교육을 강화하도록 편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의 교리를 토대로 주어진 상황에 맞게 해석, 응용하는 실습위주의 교육을 해 왔는데, 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전쟁양상과 전장환경을 고려할 때 다소 적응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원리, 원칙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일반화된 법칙을 자기개념화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술학 교육은 기존의 실습형 교육에 추가하여 이론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그러한 이론이 나타난 근원이 되는 다양한 전투사례를 연구하도록 편성함이 바람직하다. 이는 군사학 학문체계의 정립과 연계되어 군사학을 술(術)의 영역에서 학(學)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교과편성을 제안한다

<표 10> 미래지향적 교과편성(안)

전략학	국가안보론, 위기관리론, 국제정치론, 군사전략기획, 전략현안 세미나, 연합/합동작전, 전역기획 등
전술학	형태별 작전(공격, 방어, 지연전), 기능별 작전(전장기능 및 참모기능), 부대지휘절차, 적전술(주변국 전술), 제병협동 및 통합전투실습 등
일반학	전쟁사, 전쟁법, 공보, 국가관, 경영/관리학, 리더십, 논문작성 등

4) 고급군사연구과정 개설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과 아울러 교육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연구할 전문인력의 풀(pool)을 확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군사학의 핵심고유영역을 다루고 있는 육군대학에 석사학위 수여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4] 따라서 현재 미 SAMS에서 시행중인 군사학 석사과정(MMAS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육군대학에 가칭 '고급군사연구과정'을 개설할 것을 제안한다. '고급군사연구과정'은 지휘참모과정 졸업자 중에서 지원을 받아 30~40명 내외로 선발하여 교육하며, 교수요원은 민간 전문가와 현역 중 군사학 관련분야 학위소지자로 구성하되 장기계획에 반영하여 꾸준히 양성해 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급군사연구과정의 개설은 군사학 학문체계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장교인사관리 제도의 개선 등 선결해야 할 걸림돌들이 산재하여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우선 시행해야 할 사항으로는 육대 교육과정 이수시 민간대학의 석사학위과정 병행이수를 권장하고 점차 군·학 제휴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15] 비슷한 예로 미 지참대의 경우에는 민간대학 교수가 개설한 선택과목을 이수하거나, 지휘참모대의 학점을 일부 인정받아 민간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제휴학위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 프로그램

---

14) 육사 군사학 학문체계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학문체계를 먼저 형성하여 학부-석사-박사과정을 동시에 신설하고 제도권으로 진입한 신생학문 분야는 없으며, 오히려 교육과정을 설립하고 운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체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상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게서,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 p261

15) 군학제휴프로그램이란, "군 또는 군내 교육기관과 민간대학이 상호협약에 의해 직업군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석사학위과정"으로 학점교환제나 학점인정제 차원을 넘어 2개 이상의 교육기관이 입학 및 졸업, 교과과정, 교육내용 등 까지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학위과정을 말한다 문형구, 최병순 "군학제휴학위프로그램 연구", '94 국방부 교육정훈관실 학술용역연구, p18

을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육군대학에 가칭 '전술학연구소'를 설치하고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면서 장차 고급군사연구과정에 활용할 교수요원을 양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합참대에 설치하게 될 '작전술(또는 합동 및 연합작전) 연구소'와 연계하여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를 연구하는 중추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향후 군사학 석사과정의 개설을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게 되면 최종적으로 군사학 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한 '고급군사연구과정'을 개설하는데, 그렇게 되면 영관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국방교육체계가 명실 공히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고급수준의 국방대 및 합참대 과정과 중급수준의 육대과정간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작전술 및 전술 수준의 군사학 고유의 핵심영역에 대한 교육체계 뿐만 아니라 학문체계의 발전에 일대 전기가 될 것이다.

5. 결론

1806년 예나 전역에서의 대패 후 전장에서 사라졌던 프러시아군은 전반적인 군사혁신, 그중에서도 군사교육의 일대혁신을 통해 그 유명한 장군참모(General Staffs)들을 양성해냈다 이후 1870년 프러시아와 프랑스간의 전쟁이 다시 발발했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클라우제비츠의 군사교리에 의해 세심한 교육, 훈련을 받고 잘 편성된 참모제도에 의해 보좌를 받는 프러시아 장군들과는 달리, 프랑스군 지휘관들은 무지와 당혹과 무계획성을 여실이 드러냈다. 프랑스군 참모장교들이 무능했던 주 원인은 그들의 군사교육에 있어서 군사이론의 습득과 지식이 무시된 반면에 기마술과 같은 순수한 실제적 능력이 훌륭한 장교의 기준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미군의 경우 1차 대전이후 국방예산이 빈약했던 1920년대 및 1930년대에 오히려 교육에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차대전 발발했을 때, 급속한 부대확장과 동원업무처리가 원활히 수행되었고, 우수한 고급지휘관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니미츠 제독은 "해군대학의 교육과정은 매우 치밀하여 2차 대전 발발후 태평양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일본의 카미카제 공격뿐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16]

이처럼 군사교육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예는 무수히 많으며,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요즘처럼 감군이 추진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는 현재 추진중인 육군의 혁신방향과도 일치한다. 부대를 감축할수록 군은 보다 적은 자원으로 다양한 임무수행을 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보다 전문성 있는 우수한 장교의 육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방교육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각급 학교기관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주도해 나갈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함을 물론 필요한 예산지원도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육군대학은 이러한 전체 국방교육체계의 발전과 발을 맞추어 미래 육군이 요구하는 영관장교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교과편성을 개발해 나가되, 특히 군사학의 핵심고유영역을 학문(science)의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칭 '전술학연구소'의 설립과 '고급군사연구과정' 개설 등을 목표로 하여 미래지향적 교육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관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16) 최상철 "미 전문군사교육정책(번역물), 교육사령부 번역지원실, ('00년), pp 17-18

| 참고문헌 |

김열수, "군사학 학문체계 정립", 「군사논단 39호」(2004)

문형구, 최병순, "군학 제휴프로그램연구"(서울 . 국방부 정훈교육관실, 1994)

이규헌, "육사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방향", 국방대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 워크숍 발표자료 (2005)

이석호, "국방대 군사학 교육체계 현황 및 발전방향", 국방대 군사학 교육체계 발전 워크숍 발표자료 (2005)

이종인, 김인국, 「군 교육법령 제정 연구」(서울 국방연구원, 1990)

이종인, 김인국, 「국방 중장기 교육정책 연구」(서울 . 국방연구원, 1992)

이종인, 김인국, 「상급 군사교육체계 발전방향 연구」(서울 국방연구원, 1993)

이종인, 정길호, 「장교 전문군사교육체계 연구」(서울 국방연구원, 1988)

정성, "군사학의 기원과 이론체계", 「군사논단 41호」(2005)

장상호, 「학문과 교육」(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지종상, 「군사평론 304호 부록 : 군사전문성의 본질과 직업전문가 계발」(진해 육군대학 군사평론실, 1993)

최상철, "미 전문군사교육정책"(대전 육군 교육사령부 번역자료실, 2000)

한명덕, 「군사학 학문체계소요검토」(영천 충성대 연구소, 2001)

국방부, 「국방교육훈련규정」(2002)

육사 군사학학문체계연구위원회, 「군사학 학문체계와 교육체계 연구」(서울 화랑대연구소, 1999)
대학발전위원회, "최정예 중견간부 육성을 위한 육군대학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대전 : 육군대학,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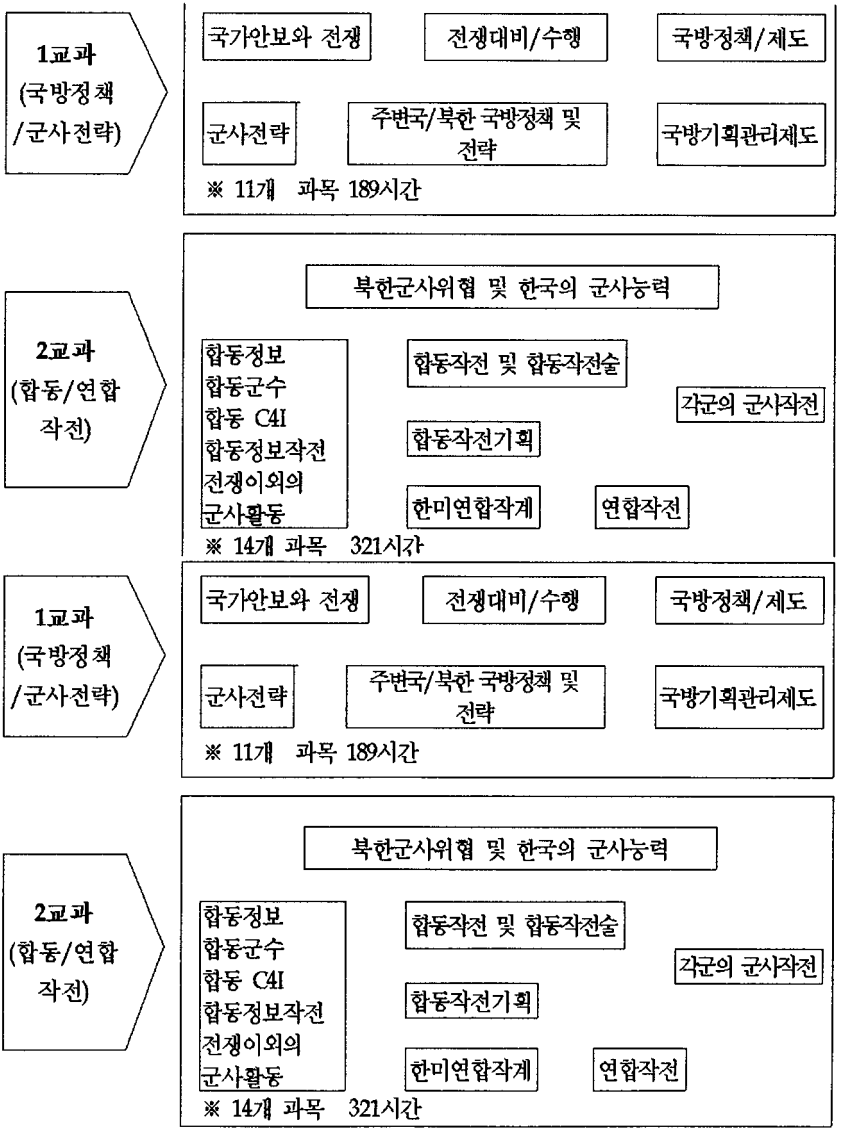
[부록] 국방대, 합참대, 육대의 현 교과편성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학 석사과정 교과편성

※범례 굵은체는 필수과목

구 분	국 제 관 계 학	군 사 전 략 학
1학기	**국제정치학, 정치학, 정치사상,** **국제관계 접근 방법론,** **국가안보론,** **국제정치학이론, 정치학이론,** 국제법, 동북아 안보론, 현대정치사상론, 정치사회론	**안보환경 이해, 군사이론 개관,** **논문작성법, 국가안보론,** **군사전략론,** 국방정책기획론, 사회과학연구방법, 현대전쟁사, 미국군사론, 러시아 군사정책과 전략, 전쟁과 문명
2학기	국제협상과 국제계약, 미국정치론, 미국외교론, 일본정치론, 중국정치론, 러시아 외교론, 안보정책결정론, 현대사회연구, 한국정치사상, 정책결정과 리더십, 국제기구론, 국가론	**국방정책론,** 민군관계론, 정보와 국가안보, 군사동원론, 전쟁과 평화의 국제관계, 전략사상사, 중국군사론, 일본군사사, 유럽군사론, 북한군사론, 연합 및 합동작전, 군사동맹론, 해전사, 국가안보와 과학기술
3학기	국제분쟁론, 한미관계론, 일본외교론, 국제정치경제론, 동남아지역연구, 해양항공법, 정치발전론, 북한사회변동론, 북한정치론, 북한외교론, 통일사례연구, 중국외교론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항공우주전략, 해양전략, 위기관리, 군비통제론, 한국군사론, 국가안보기구론, 저강도분쟁, 현대일본군사론, 군사기획론
4학기	국제인도법, 국제관계사례분석, 강대국관계론, 국제안보문제연구, 중동지역연구, 안보사상연구, 군대와 사회, 한국정치론, 논문, 한국외교론, 통일정책과 군사통합,	군사협상론, 군사외교론, 국방정책 사례연구, 테러리즘과 대 테러리즘, 미국 군사세미나, 중국 군사세미나, 러시아 군사사, 전쟁론

□ 합참대 정규과정 교과편성



□ 육대 기본과정 교과편성

과 목	중 점	과 목	중 점
전쟁사	• 6 25전쟁사 • 1·2차 대전 주요전투 • 중동전쟁, 현대전쟁	공격작전 (사단)	• 공격작전의 기본 개념 • 사단 공격작전 계획수립 • 전투실시간 상황조치
지휘 통솔	• 지휘통솔자 품성구비 및 부대의 인적·물적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 전장에서의 지휘통솔 원리 이해	방어작전 (사단)	• 방어작전 기본개념 • 사단 방어작전 계획수립 • 전투실시간 상황조치 • 지연 / 후방지역작전
공보 업무	• 공보업무의 본질 이해 • 공보업무를 위한 제 수단 및 대언론통제 방법 이해	군사이론 (Ⅰ)	• 전술의 역할과 전투 • 전술의 제 이론 • 전술제대 전투수행 개념
군사법	• 군사작전의 정당성 보장 • 안전규칙 이해 및 적용 • 전쟁법 개념 및 내용 숙지 • 평시 군작전의 법적근거 이해 • 군사작전시 국가책임 이해	북한군 전 술	• 군사사상과 작전전술교리 • 북한군 공격 방어 기본교리 • 집단군/사단 및 해·공군 능력 • 집단군/사단 공격·방어계획
군사 사상 (Ⅰ)	• 한민족 군사사상의 뿌리 • 다물, 전사(戰士), 화랑도 정신 • 고려의 북진정책 • 조선의 선비사상과 상무정신 • 민족정기의 회복	전투지휘 훈 련	• 전투지휘훈련 훈련체계 • 전술적 과오 사례 • 육군 전술지휘정보 체계 • 전투수행체계 / 절차 숙달
참모학	• 지휘관 및 참모업무 수행절차 • 전시전환절차 이해, 전투준비태세 • 부대지휘절차 • 전술상황 조치 능력 배양 • 교육훈련관리 능력 구비	군사전략	• 국가안전보장, 군사전략 개념 • 주변국 및 남·북한 군사전략 • 민군관계
군사사 (Ⅰ)	• 군사사 개요 • 무기체계와 전술의 변화 • 무기체계와 군사전략	작전술	• 작전술의 정의 • 작전술의 역할 • 연합사 작전계획

□ 육대 정규과정 교과편성

과 목	중 점	과 목	중 점
지휘통솔	•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 인간중심의 지휘통솔 • 전사를 통한 지휘통솔 사례	후방지역 작전	• 후방지역 작전 개요 • 후방지역작전 유형별 계획 수립
한국민족사	• 민족의 개념, 식민사관비판 • 영토관과 국경문제 • 민족 정체성과 상무정신	침투/국지도발대비	• 대침투/국지도발대비작전 교리 • 유형별 작전 및 상황조치
6·25전쟁사	• 북진작전 • 영천지구전투 분석 등	북 한 군 전 술	• 군사지휘체계, 전시 지휘구조 • 땅크, 기계화, 특수전부대 • 대량살상무기 능력 및 위협
세계전쟁사	• 엘 알라메인, 마켓가든작전 분석 • 걸프전, 이라크전 분석 • 4차 중동전의 시나이 전역 분석	군사사상 (Ⅱ)	• 전쟁관과 군사력 사용 • 동양의 군사사상 • 서양의 군사사상
참 모 학	• 정보작전, 민사작전 계획 • 전투근무지원 부록 작성 • 동원분야 발전방안 • 미래 사단급 참모업무	군사이론 (Ⅱ)	• 군사전략 이론 - 군사전략의 유형과 제 이론 • 작전술 이론 - 작전술의 역할, 작전술의 유형
연구논문	• 보고서 작성 및 브리핑 • 연구논문 작성	군사전략	• 전략환경 평가, 군사전략 수립 • 안보현안 분석 / 토의
군사사 (Ⅱ)	• 군사제도의 개요 • 고대,중세, 근·현대 군사제도	작 전 술	• 합동작전 및 연합작전 • 전역계획수립 실습
공격작전 (군단/사단)	• 군단 공격계획 / 상황조치 • 산악지역 공격, 도하공격작전 • 도시지역공격작전, 동계공격작전	합동교육	• 주요작전 계획수립 실습 • 합동연수
방어작전 (군단/사단)	• 군단 방어계획 / 상황조치 • 산악방어작전, 하천선방어작전 • 도시지역 방어작전	야전군 작전	• 야전군의 역할, 기능, 능력 • 야전군 작전계획 수립

A suggestion for reforming defense education system and army college education program in the next decade

Choi, In-S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mmend the Ministry of Defense(MOD) for revolutionizing the current defense education system As an instructor and an education planning officer of the ROK Army College, for last dozen months, the author has been embarrassed whenever tried to figure out what would be the role, functions, and educational goals of the college. In a nutshell, there has not been any general guidance for educating field grade officers This unbelievable defect mainly comes from the absence of a responsible organization in the MOD Even though it has the education branch under the department of personnel affairs, it doesn't have capabilities to design and implement the consistent and valuable education policy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defense education should begin with reinforcing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s of the MOD education branch We need more experts on education(*i.e.* Ph.Ds of Education) and experienced specialties on defense education so that we could develop the overall guidance for military professional education. In addition, we need to enact the "defense or military education act" in a tentative name This will ensure the legitimacy and continuity of defense education guidance initiated by the MOD

In a conclusion, it is senseless to think the blueprint for the Army College out until the preconditions mentioned above are matured. We must begin with rectifying the higher educational system.

Key Words · Defense, Education.